

고객서 답 찾고 디지털 혁신으로 새 도약

2020년 지속가능 성장으로 미래 연다

100년 기업 실현... 타협없는 품질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가 2일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주요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신년사는 김기남 부회장이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투자·수출에서 소비로의 침체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의 실현’이라는 꿈을 함께 공유했다”며

“2020년은 이를 만들어 나갈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과 도약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실천사항으로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선대의 전통과 자산을 계승, 발전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미래 성장

경쟁력을 확보하자”며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 기반을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경기변화에 강한 사업 체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치 타협없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에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자”고 마무리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고객 위한 변화·혁신... 미래車 시장서 리더십 확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2020년을 미래 자동차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고객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진행된 2020년 신년회에서 세해 메시지를 통해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정 수석부회장은 2일 서울 양재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서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2019년 새해 메시지에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와 제휴 협

력을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이를 토대로 정 수석부회장은 올해부터는 미래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실행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올해 신년회에서 밝힌 정 수석 부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의 이정표를 세우고, 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시장 리더십을 가시화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전동화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 개발과 핵심 전동화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하여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시민·고객·구성원이 만든 신년사... 나누는 행복 추구



SK가 신년사를 대신해 시민과 고객, 구성원 등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 광진구 위커킬호텔에서 열린 2020년 SK 그룹 신년회에서 구성원 대표들이 행복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SK

SK는 2일 서울 위커킬호텔에서 2020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는 올해 최 회장의 신년사를 따르며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여러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현장 발언, 신입사원 등 구성원간 대담으로 꾸며졌다. 시작은 SK 서린빌딩 인근 식당 종사자와 기관 투자자, 청년구직자

와 임직원 및 가족들이 많았다. 영상 통해 SK에 대한 바람을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소셜벤처 지원 사업인 루트 임팩트 허재형 대표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정호 교수, 전북 군산 지역공동체 활동가 조권은 씨 등이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복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작지만 구체적인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SK를 넘어 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등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재웅 기자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에 있어... 기본정신 강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구광모 LG 회장이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들었다.



구광모 LG 대표 신년사 영상 모습. /LG

LG는 2일 ‘LG 새해 모임’을 열었다. 구 회장 첫 주재 신년행사, 31년만에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벗어나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구 회장이 처음 주재하는 신년 행사로 이목을 끌었다. 부회장과 사장단을 비롯해 생산직과 연구직 등 다양한 직무 직원들까지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70여년간 LG가 매출 160조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23만명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수많은 파트너사들의

신뢰와 협력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구 회장은 올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기본 정신을 깨우고 더 발전시킬 때라고 당부했다. LG가 나아갈 방향이 고객에 있었다며, 신년사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30차례에 걸쳐 언급하

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고객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세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등이다. /김재웅 기자

2020년 경영 키워드 ‘점프’... 공생의 가치 창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0년 새해 경영 키워드로 불확실한 경영여건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자는 ‘점프(JUMP)’를 선정했다. JUMP란 조인 투게더, 업그레이드 벨류, 무브 포워드, 위드 포스코의 줄임말로 더불어 함께, 공생의 가치를 창출하고 역경을 돌파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사업의 진화 및 핵심사업 집중 ▲기업시민의 핵심인 공생가치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작년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중 갈등으로 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차전지소재, 스마트팩토리,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더욱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3가지 경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선진적 노사문화를 구현할 것으로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의 핵심인 공생가치 창출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 고착 국면을 극복하고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며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할 때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공생가치는 한층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올 해는 일류 한화의 선도 지위와 미래 가치를 확보해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2010년 선포했던 ‘질적 성장 2020’ 비전의 마지막 해로, 이제 또 다른 10년의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핵심 사업은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적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경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가 그룹 디지털 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각사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추진해 변화·성장의 기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단순한 모방과 추종을 넘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사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해 멀리 보고 투자하며 구연한 기업문화로 혁신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 비중을 확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가치와 성장성이 높아지는 회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보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경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며 “올해가 그룹 디지털 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각사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추진해 변화·성장의 기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단순한 모방과 추종을 넘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사는 중장기 목표에 입각해 멀리 보고 투자하며 구연한 기업문화로 혁신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 비중을 확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가치와 성장성이 높아지는 회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